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노랫말처럼 또 관용어처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책읽기에 좋은 절기다.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비축해야 할텐데 불자들은 불서를 읽어 일석이조를 얻어보자. 특히 경전은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지혜의 창고며 공덕이 무한히 쌓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6조 혜능대사는 〈금강경〉에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라는 구절에서 홀연히 본성을 깨쳤다고 한다. 의욕을 내서 경전을 포함한 불서를 새롭게 만나보자.
〈편집자주〉

경전이 있는 곳에는…

경을 배우는 태도에 다섯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경을 많이 배우려 생각하는 사람, 둘째는 공덕을 많이 행하려는 사람, 셋째는 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넷째는 남을 위해 경을 설하고자 하는 사람, 다섯째는 윤회를 끊고자하는 사람이다. (매의경)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외우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의(文義) 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초목을 많이 져 날라 백 천 집에 이른다 해도,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출요경)

어디서든지 이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칠보로써 탑을 쌓되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또다시 사리를 봉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여래의 진신(眞身)이 있는 까닭이니라. 〈법화경〉

선남 선녀들이 반야바라밀을 단지 서사(書寫)해 책으로 만들어 집에서 공양만 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으며, 외우지도 않고, 설하지도 않으며 바르게 사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세에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대품반야경)

보살은 중생의 말 글 도리를 널리 배워서 다 통달해 의혹함이 없고, 인색나 잇는 일이 없다. (대반야경)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세속의 기예치고 두루 익히지 않는 것이 없다. 소위 문자 산수 인장과 지수화풍(地水火風)의 갖가지 논서에 다 통달하는 것이다. (화엄경)

세상의 온갖 경전과 소(疏) 논(論)을 다 통달하면, 이 때문에 게달을 때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다시는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런 지혜를 무애지(無碍智)라 한다. (대집경)

천장(千章)을 읽은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한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구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첫 불교여성환경세미나 불자련, 10월 14일 조계종 불교회관서

불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여성과 가정을 위한 풀뿌리 환경운동을 전개할 '녹색살림' 발족에 앞서 오는 10월 14일 오후1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제1회 불교여성환경세미나'를 개최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다는 취지의 이날 세미나에서는 前 춘천MBC PD 박정예씨가 '불교여성과 환경운동'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경숙(환불교여성회 환경분과위원장) 양재혁(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연구위원) 김향미씨(독일 뮌스터대 석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총무원·종회 해인사 사태 중재 나섰다

혜암방장 사임 재고요청 등 후유증 최소화 노력

강원폐강 무효·7직해임등 10개항 결의 해인총림 중진회의

9월 20일 해인사방장 혜암스님의 전격적인 방장 및 원로회의장직 사임으로 해인골프장 건설반대과정에서 빚어진 해인사 내분이 일단수습국면으로 전환했으나 교계는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종회 의장 설정스님이 22일 해인총림 산중수습대책위(위원장 보광)와 원당암 혜암스님을 예방하고 중재에 나서는등 조계종 중진스님들의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있어 조기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단 초유의 방장사임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이다. 가장 고민스러운곳은 총무원. 방장사임이라는 전례가 없을뿐 아니라 혜암방장은 개혁의 상징적인 원로스님이라는 점, 더구나 이미 원로 서암스님을 불명예 퇴진시킨바있는 전례로 더욱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9월 18일부터 유럽 순방중에 있어 공식입장마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무원은 20일 혜창(총무부장) 혜담(호법부장)스님이 황급히 해인사로 내려갔지만 혜암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 공식입장은 29일 월주스님 귀국이후에나 정리될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혜암스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상태에서 해인총림대책위를 공식 인정하지 않을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혜암스님의 방장사임 발표직후 해인총림산중중진 43명은 해인총림산중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장스님의 사임을 수락하며 번복시 불신임 결의 △주지이하 7직해임 △이후 주지자인 무효 등 10개항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수습대책위 일정과 관련 방장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는 10월경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향후 총무원과 해인총림대책위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볼 때 산중총회에서 공식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방장문제가 재발될수있고 방장이 아닌 해인총림대책위의 주지 해임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 학인들로서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인사 학인들은 "주지 성법스님과 기획실장 무착스님의 종무행정 전횡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따라 이들 스님들의 책임을 물었던것이지 방장스님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방장사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학인들이 종단의 어른스님을 몰아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인사 주지 성법스님은 9월 22일 부산 아리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지직 사의를 표명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여법하게 주지직을 수행할것이다"며 "사후대책을 위해 오는 10월3일 대각사에서 용성문도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인총림은 혜암스님이 주석하는 원당암을 비롯 성철스님이 주석했던 백련암과 지족암 홍제암 등을 근거로 한 다수문중이 원융살림을 꾸려가는 도량으로 앞으로 이들 문중간의 화합여부에 따라 해인사의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것으로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열 · 이윤호기자〉



훈련병 4천5백여명 수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9월 22일 논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4천5백여명이 오계를 받았다. 군불교진흥회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서 동학사, 중앙승가대학스님 20여명이 훈련병들의 팔에 연비했다.

해인골프장 백지화 범국민 대책위 결성

74개 종교·환경·시민단체 동참

60만명 서명…생태관광코스 개발 촉구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참가자가 60만을 넘어선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관련기사 4면〉

전국불교운동연합 경불련 등 불교계 15개 단체로 구성된 범불교도대책위를 비롯 경실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정의평화실천목회자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74개 종교·환경·시민단체 대표 및 실무자 2백여명은 9월 23일 서울YMCA 강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해인골프장 건설의 전면백지화 △환경영향평가제의 재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결성선언문에서 "지난 7월18일부터 시작된 백만인 서명운동에 60만명이라는 엄청난 국민이 함께 했다"고 밝히고 "김영삼대통령이 천명한 환경국가 건설은 전국민적인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취소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또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골프장 예정지를 국가가 매입, 가야산 국립공원 지역에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대회 참가자들은 결성식이 끝난 후 '민족성지 가야산에 골프장건설 절사반대' '문화유산 지정해놓고 골프장건설 웬말이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 도원스님



◇ 혜도스님

동참해주신 분 △도원 천태종총무부장: (5구좌) △혜도 한마음선원부산지원장: 남도여중 부산고 경남여고 금성고 금성중 부산중 부산서중 경남여중 한국고등기술학교 선화여상 선화여중 부산동여중 부산공예고 태레사여고 태레사여중 (15구좌) △보선 보광사주지: 금산고 금산여고(2구좌) △선혜 대각사스님: 군자고 송암보육원(2구좌) △중영 의정부 불암사주지: (2구좌) △운담 강화 적선사주지: 삼랑중고(1구좌) △유병구: 남강중(1구좌) △정한영 한마음선원사무장: 강릉초등학교(1구좌) △정경용: (1구좌) △이성현: 용산공고(1구좌) △이동구 현대불교인천지국장: (1구좌) △김선용: (1구좌)
〈9월18일 현재 총 479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절마다 '절·참선' 수행 11면
지상중계-봉은사 사찰환경 세미나 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34 HALLA 1962-1996 創立34周年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世上을 만들겠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漢拏는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環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라는 자연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라의 모든 사업장에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춰
'綠色經營'을 펼치고 있습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해운 · 한라자원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정보시스템 · 한라펄프제지 · 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산업기술 · 마르코폴로 호텔 · 배달학원

사 설

'8만4천법' 무색해서야

해인사가 어떤 도량인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올곧이 그대로 팔만사천 경판에 담아 보존하고 있는 법보종찰이 아닌가. 더구나 화엄선종의 종찰인 동시에 5대 총림의 수사찰이다. 특히 해인강원은 반세기 역사와 전통으로 1천여 졸업생을 배출한 인재양성의 산실이다.

해인사 내분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법보종찰이기에 부처님께서 이끄시고 보살님네와 호법신중이 보호하셨는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9월 11일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강원을 폐강하기로 결정하면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갈등과 불화의 소식이 터져나왔다. 연이어 14일에는 대적광전에서 강원학인들이 해인총림 수호를 위한 무기한 단식철야정진에 돌입했다. 해인강원 동문회, 전국승가대학교직자협의회, 해인사총림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종회에서는 해인사 조사복위가 구성되어 수습에 나섰으며 교육원에서도 19일 산하 3개 위원회와 전국승가대 교역자 연석회의를 열어 해인강원 폐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숨가쁜 순간 순간들이 이어졌다.

급기야는 20일 해인사 방장 혜암스님이 해인총림의 방장 자리와 조계종원로회의 의장직의 사퇴를 표명하고 해인사는 총림산중중진회의가 열리고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비상 수습국면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원로를 중시하는 불교계에서 '방장사퇴'라는 초유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등 해인사 내분은 아직도 슬기롭게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제발 더 이상 스님들의 분규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무아실천적 수행자의 거룩한 모습이 어지러운 세상을 맑혀주고 안정시켜 주는 등불이 되기를 모든 불자는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번 해인사 내분을 계기로 몇가지 제언하고 싶다.

첫째, 해인총림산중중진회의는 어떠한 개인감정이나 문중의식을 떠나 사부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입장에서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해인총림의 전통을 회복하여 수행 가풍을 일신하도록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현실적으로 총림이라는 큰살림을 꾸리기에 비효율적인 점이 나타났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번과 사변이 잘 조화를 이뤄 여법한 총림살림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해인사는 선원·율원·강원의 여법한 수행과 공의에 의한 '열린 총림'으로서의 내실있는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중파벌의식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인사관리등 종무행정 전반에서 성실한 수행과 포교와 가람수호가 잣대가 되기보다는 문중관념이 우선시 여겨지는 풍토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심지어 이해에 따라 문중이동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우려된다.

넷째,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에 전 종도가 동참하고 국민적인 의지로 해인사의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 사찰문화재는 민족의 전통문화인데도 의식없는 개발과 물질향유에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은폐되고 훼손당하고 있다.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세계에 심는 애민애족의 정신으로 우리 문화전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야산골프장 설립반대에 전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때에 해인사에서의 불협화음은 어불성설이다.

원컨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열린마당 해외성지순례

89년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따른 과소비 역시 만만치 않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금년에도 국제선 항공예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스님들의 해외여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성지순례의 현황과 바람직한 자세를 듣는다. 〈편집자 주〉



◇해외성지순례가 자칫 과소비 관광여행이 되는 수가 있어 불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태국 방콕의 왕궁사원.

해외성지순례 현황

연간 3천여명 인도·중국 등지 '발길'
대부분 사찰위주로… 8박9일 '선호'

10월은 부처님의 땅 인도불교성지순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다. 이는 계절의 변화가 심한 인도가 10월부터 3월까지 대기가 건조하고 맑아 참명한 날씨가 계속돼 여행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인도·동남아 등지로의 해외불교성지순례는 89년 해외여행자율화정책을 시작으로 91년부터 본격화됐다. 이들 성지순례단이 주로 찾는 곳은 인도의 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라의 4대성지와 네팔이 대표적 코스로 꼽히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며 근본불교와 불교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순례단이 찾는 불교국가도 광범해지고 있다. 인도 네팔 외에도 미얀마(파간탑군), 캄보디아(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중국(구화산) 등이 새로운 불교성지순례 코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성지순례를 떠나는 숫자는 연간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여행사들은 집계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는 사찰이며 신행단체, 소모임 등도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재가불자이고 스님은 전체 여행자 수의 1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기간은 8~9일 정도이고 경비는 인원이나 경유지 숙박 등이 변수로 작용하긴 하지만 약 1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행사측은 밝히고 있다.

해외여행의 붐에 따라 호황을 맞고 있는 성지순례가 자칫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과소비 관광여행이 되는 수가 있다. 올바른 성지순례를 위해서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일부 여행사들의 각성도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선지식 가르침 배우는 만행정신 가져야

현진 〈청주 관음사 총무〉

"그대는 서역길이 먼 것을 한탄하나, 나는 동방으로 가는 길 먼 것을 한탄한다. 길은 거칠고 눈은 산마루에 쌓였는데,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의 떼가 우글거린다. 새는 까마귀는 멧부리에 놀라고, 사람은 좁은 다리 건너기가 아슬아슬하다. 평생에 눈물 한번 뿌려본 적이 없건마는, 오늘은 천줄기나 비오듯 하는구나."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스님의 시구절이다. 혜초스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순례의 길이 아니라 험난한 구도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옛 스님들은 불적순례를 구법(求法)의 원력으로 삼았음이다. 그래서 언제나 순례자의 노래에는 신심과 수행이 담겨 있었다. 절집안의 전통은 여행이 아니라 만행의 정신이다. 공부를 점검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운수(雲水) 나그네가 되는 것이다.

해외여행객의 숫자가 부쩍 많아지고 있지만 순례의 목적은 아닌듯 싶다. 유람의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경쟁하듯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된다.

스님네가 만행길을 나설 때 걸망 하나만 챙기듯, 여행하는 이는 배낭 하나면 족하리라. 그것은 가방에 채워서 돌아오는 여행이 아닌 배워서 점검하는 게 참다운 여로(旅路)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설 때마다 혜초스님 현장스님을 친절한 안내자로 삼는다면 어떨까.

역사·문화등 미리 알고 출발… 과소비 조심

리선행 〈조계종 상임포교사〉

부처님의 체취가 어린 곳이나 불교유적들 그리고 불교가 성행한 나라를 여행하노라면 진정 우리의 삶은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성지순례 길을 함께 해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우선 성지순례를 단순한 해외관광여행으로 착각하거나 불교 교리나 현지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한 상식하나 없이 출발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순례보다는 쇼핑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요란스러움은 과소비여행군에 포함시키고 싶다. 스님이나 어른들에게 노자돈 드리는 건 잘 보고 오셔서 좋은 법문 들려주십사는 부탁일진데 꼭 답례품을 고르는 그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고추장 된장에 김치 보따리까지 메고가는 꼴불견도 있고 거금을 보시하였다고 외국의 사찰 경내에 이름적어 공덕비를 크게 세운 이들에게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진정 불자로서 불교성지순례를 하고자 한다면 부처님을 닮기위한 부처님이 되기위한 발원을 담은 고행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호화로운 여행계획이 아닌 선각자들이 걸망메고 구도행각에 나섰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 순례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도반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가짐의 보살행을 하는 여행길이 되도록 하자.

향락·눈요기여행 탈피 佛法체험 계기로

박지현 〈서울 방생선원 신도〉

이번 가을엔 태국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불교국가의 여러 불적을 돌아볼 계획으로 초행길인 나로선 하루하루가 손꼽아 기다려진다. 하지만 걱정도 뒤따른다. 너나 할 것없이 휴가때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유행처럼 돼 버려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외화낭비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 지금 무엇을 위해 떠나왔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목표의식 없이 그저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기 일쑤라고들 하는데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신청한 나도 본의아니게 그 무리에 휩쓸려 그저 눈요기만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함께 한다는 든든한 백(?)이 있기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만으로는 수박겉핥기식 여행이 될 것이 눈에 선한 일이다.

여행을 다녀와서 며칠만 지나면 거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저기같은 착각이 들고, 그곳이 뭐하는 곳이었으며 어떤 역사가 숨쉬고 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여행문화의 현주소는 아닌가라고 걱정한다면 기우일까.

또한 성지순례를 떠난 여행객들이 성지순례한다는 감격스러움도 잊은채 버스, 호텔을 가리지 않고 고스톱, 술판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데 여행을 앞두고 있는 나로선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목어

국화꽃을 바치는 마음

'취나물과 파, 부엌칼만이 덩그라니 남아있을뿐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친척들은 심장이 약한 어머니 김치심(60)씨에게는 아들의 사망소식조차 알리지 못한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22일 강릉시 칠성산 계곡에서 무장공비와 교전하다 숨진 강정영 상병 송관종일병의 고향표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심정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강상병이 남긴 가족사랑 편지는 남은 이들의 눈시울을 더욱 뜨겁게 했다.

"1월 휴가때 어머니 이마와 눈가에 진 주름이 많이 늘어 가슴아팠다. 나가는 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누가 자식잃은 그 어머니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21일 전사한 이병희중사도 이번 추석에 어머니에게 가스레인지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효자다. 6개월후 약혼녀와 결혼해 부모님을 권히 모시겠다며 군복무를 1년 연장한 검은 베레모의 전사에 우리는 그저 목이 메일 뿐이다.

청풍명월 아래 풍년을 구가하며 조상을 기리는 더없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이처럼 민족의 비극을 실감하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사랑·조국수호'라는 이름으로 '젊은 넋'을 위로하고 감싼다해도 부모와 가족의 비통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병사들의 영전에 국화꽃을 바치자.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고 살때가 많다. 무장공비가 타고 온 좌초된 잠수함, 초비상 사태의 공비수색 실전을 '분단국의 현실 바로보기' 교훈으로 삼자.

분단국의 주인임을 자각한다면 북쪽을 도울 수 있다는 자만심, 해외에 나가서 우쭐대는 과소비 등은 용납할 수 없는 허세다.

야산 숲에 널브러져 있는 무장공비의 시체 화면을 보노라면 만감이 교차한다. 대북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늘 깨어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자.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현대만평

박구원



방장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남의 말 사실여부 살펴야

친구를 남의 말만 믿어 버려서는 안된다. 남의 말을 듣었을 때는 사실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근본니나야육〉

협찬 과천 보광사 대중 일동 TEL.(02)502-2262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도심 천년도량 지키기 '국가의무'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찰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가 지난 9월 21일 대웅전에서 '봉은사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아셈 초고층 빌딩신축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천년간 명맥을 이어온 문화유적공간을 지키기 위해 아셈 행사장의 건립계획이 부분 또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사찰환경 보존세미나가 21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1백여명의 신도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봉은사 수행공간과 아셈행사장 건립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봉은사 사찰환경 보존 세미나 지상중계

완공땐 교통난·소음·대기오염 최악상황
사찰환경권 법제화로 역사현장 보존을

단 이틀간의 행사를 위해 천년문화유산을 침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천년을 살아가야 하는 후손들이 결정할 몫이라는 것이다.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셈은 세계 35개국 정상이 모이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국제 행사이다. 국가이익과 문화유산보존이 충돌한 아셈 초고층빌딩신축,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성관스님(조계종 문사부장)

최근 조계종에서 접수된 '개발에 의한 사찰환경 파괴'는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기업과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그곳에 사찰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인연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조상들이 세우고 일궈놓은 우리문화를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연친화적인 발상의 전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가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문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찰환경파괴는 단순히 당해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 사찰환경권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임삼진(녹색교통운동연 처장)

상성동지역은 러시아워와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상습정체구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여기에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예상하게 한다. 이 지역은 4단계 신호체계가 운영되는 곳으로 교통량이 2배로 늘어날 때 정체와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체증은 70~80%에 이른다. 공기오염 및 소음 등의 공해유발은 2배 이상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지역전체를 보지못하는 맹점이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유산보존은 세계적 경향이다. 봉은사는 그 자체가 서울시의 중요한 보물로 이곳에 초고층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다.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이영경(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아셈건물이 완공되면 경관이 변화되는 동시에 건물기능에 부합되는 새로운 활동이 도입된다. 공식행사와 회의, 전시회등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호텔영업과 백화점의 부대영업행위로 대규모 차량이동과 인구이동이 수반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위해 밤낮없이 시각적 환경을 점유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과 변화로 '봉은사로'라는 도로가 '컨벤션로'로 바뀔 수도 있다.

봉은사가 당면하는 사찰환경 훼손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문화유적의 보전 관리방법의 허술함에서 비롯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문화역사 공간영역의 설정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차재윤(아셈사업단 관리본부장)

무협은 수출과 무역진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없는 전시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도 전시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2천년대는 3~4배의 전시수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아셈행사장 건립이 요구된다.

봉은사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일주문앞은 녹지화하고 사무동을 2동에서 1동으로 축소하며 호텔도 27층으로 낮출 계획이다.

길기석(강남구청 도시정비국장)

아셈행사장 건축관련 주민의사 수렴을 마쳤다. 서울시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강남구가 건축허가를 한다. 그러나 봉은사와 무협의 환경침해, 공해문제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봉은사는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근린공원구역이어서 안타깝다.

김선희(국토개발연구원)

오늘의 문제는 수행도량 봉은사를 살리고 아셈대회를 무난하게 치루는데 있다. 고층건물이 수행도량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건축공사시의 폐기물, 진동, 소음도 문제이고 대회 이후의 교통과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대안으로 현규모에서 1/2~1/3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준엽 기자

불교교육정책협 '불교 교육제도' 공개토론회

성직자 양성제 다종교 현실 무시 '위헌'
서구학제 무조건 도입 '개신교 위주 행정'
전통강원에 현대교과과정 도입 바람직

지난 9월 19일 한국불교교육정책협회(회장 한상범)가 세종문화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교교육제도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는 개신교의 전통방식인 대학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성직자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서양의 개인주의 교육이념을 심는 문화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은 미국식 학제가 여과없이 도입된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프로그램이 개인의 행동 결단을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는 서양의 개인주의 인간화교육으로 서양사람의 정신을 심고 있다는 현실 우려의 소리다.

이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식 학제개편을 무리하게 시도하다보니 역사교육배제론과 여러가지 불교계와도 교육정책에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하는 역사바로세우기운동과 전면 배치된다고 성토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방안Ⅱ'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 신설과 사립 중·고교에 종교과목 개설을 발표하여 위헌성 시비와 함께 불교계에 백지화 약속까지 한 사안이 기존의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중인 가운데 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불교교육정책과 대응을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는 헌법이나 법윤리를 바르게 지켜야 하는 국가가 각 종교 종단 교파의 교리에 따라 성직자를 양성해온 것을 국가 주도하에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발상자체가 국교제도를 인정치않는 헌법에 정면배치되는 문제의 사안이다. 그런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가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교전문대학원에서 단설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윤이흠 서울대교수는 "개신교의 전통인 대학제도로 성직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문화정책이다"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교육정책 무대책을 반성하고 역대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극복하여 현대적인 불교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 그 방안은 강원을 일반 대학 형태로 개편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사회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강했다.

또 종교문화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연구 계획을 통한 미래 불교교육 마스터플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것은 불교적 특성을 지닌 교육을 실시해야만 불교의 성장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불교교육정책이 연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우 기자

시론

'동족상잔' 언제 끝날까



김 희 오
〈동국대 교수 · 국제관계학〉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무장간첩사건이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침투목적에서 행태에 이르기까지 아직껏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 침투 목적이 무엇이고 사건의 경위가 어쨌든간에, 이것은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에 틀림없다. 북한의 빗나간 상황인식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잔뜩 움츠려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빗나간 상황인식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흥분하고 정부가 강경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내의 대북강경론자들을 부추기고, 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보수화 분위기와 맞물려서, 대북정책의 강경화로 이어지고 정책의 선택 폭을 더욱 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된다.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방향을 잃은 채 갈팡질팡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올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북한의 안정을 원하며 고립을 원치 않으며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매우 유연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시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노린 강수로 분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기치 않은 잠수함의 좌초로 인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의도된 무력행위가 그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 내부에 대남강경론을 주장하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강경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표현하면, 부분적이나마 대외개방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내부의 테크노크랫(technocrat)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들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붕괴 이후,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은 몸부림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 애써왔다. '두개의 조선책동'이라며 극구 반대해 오던 UN동시가입을 받아들였으며,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했고, 나진·선봉경제특구 설치와 같은 부분적이나마 대외개방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국제적인 테러국의 이미지를 벗으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 북한내 테크노크랫 중심의 온건파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생각처럼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수교협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고,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도 더 이상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외자유치도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이처럼 온건노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온건파들의 입지는 점차 좁아져 왔다. 이에 따른 위기의식과 절망감은 결국 북한내에서 강경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한국정부가 추구해온 일련의 대북강경정책과 대북봉쇄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배제정책을 추구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일관성 절실

남북한 모두 강경론이 큰 목소리를 차지하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결국 한반도는 긴장에 휩싸이고 남북한간의 충돌만이 되풀이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흥분을 가라 앉히자. 북한의 대남강경책에 대한 물샐틈없는 수비책을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아래 남북관계의 장래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족을 사고하고,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자. 이같은 예지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생활속의 불교 ㉑

천하의 명의가 지어준 양약이 싫다면

종합병원의 로비는 언제나 발디딜 틈 없이 붐빈다. 늘 환자들로 그득하다.

유명한 전문의의 특진실은 몇개월씩 순서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그 문턱을 넘어 볼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아픈 몸을 보이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항상 쇄도하기 때문이다.

병 있는 사람은 양의(良醫)를 갈망한다. 그 분들의 진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단 몇 分의 진찰일지라도 2, 3개월쯤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요 보기드문 믿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좋은 약이라면 千金을 마다하지 않는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구할 수 있음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기며 거금을 던지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는 아무런 임상결과가 없는 경우라도 단지 몸에 좋다는 말만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反문명적인 짓 -잔혹한 살생, 비위생적인 짓도 서슴지 않는다. 참으로 지극한 발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병 마음의 보약에 대해서는 전혀 판이한 태도를 보인다.

가령 누가 자신의 지나친 욕심,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그 잘못을 지적했다고 하자. 그러면 십중 팔구는 화를 내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심하면 반격을 가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원수같은 사이가 되기도 한다.

몸의 병은 한시라도 빨리 의사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마음의 병은 혹시 남이 눈치라도 챌 양이면 고마와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고 얼굴을 붉힌다.

눈 밝은 사람이 있어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것처럼 행운으로 여겨야할텐데 대부분은 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마음에 유용한 양식이 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다. 몸에 좋다고 하면, 정력제요 강장제라고 하면, 뱀 쓸개 곰 발바닥 지렁이 개구리 굼벵이 따위도 입에 털어 넣으면서 마음의 양식이 될 가르침은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다. 하물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기란 아주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육체가 마음보다 더 중요한가. 육체가 나의 대부분이고 마음은 거기에 비하면 한 모퉁이 정도의 중요성 밖에는 없다는 것인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육신을 애지중지 보물단지 다루듯이 다듬고 장식하고 아끼는 것으로 보아서는, 육신이 마음보다 분명 소중해 보인다. 그러기에 우리들 중 대부분은 육신의 병을 더 안타까워하고 육신의 약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육신의 병만이 병은 아니며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이고 마음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것은 병든 자아이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이란 단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곧 치유될 수 있는 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쪽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보다 몸에 더 비중을 두는 습성에 젖어 있는 한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명의와 양약이 더 소중한 것이다.

부처님은 천하의 명의이시고 불법은 더할 나위 없는 양약이다. 내 알몸을 의사에게 보이기를 앞 다투지 말고 부처님의 진찰 부처님의 처방전으로 건강한 자아가 되자

협찬 : 김 정 희

법회 안내

봉은사(02)545-14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파라미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6시
구역연합법회 매월 셋째주 월 오전10시
거사법회 매주 화 오후7시30분
봉은사합창단 매주 목 오후7시

구암사(02)877-237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반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성지순례 매월 1회

영각사(0345)498-770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안산 기사회법회 매월 둘째주 화 오전11시

삼충사(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영주암(051)754-22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참선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성불원(0371)762-4848

성불회원대법회 매월 9일 오후6시
불광청년회 매주 수 오후6시
시청법우회 매월 둘째주 토 오후3시30분
선우가족법회 매월 첫째, 셋째주 화 오후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원각사(0392)33-062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대불학생회 매주 목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월 오후7시
달마회 매월 14, 24일 오후6시
금강회 매월 10일 오후7시
거사림회 매월 둘째 수 오후7시
군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자비사(051)505-3000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2시

광성사(051)243-2468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종교인협 '남북합의서…' 대화모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는 9월 19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남북합의서 이행의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16차 대화모임을 가졌다.

양영식 통일원 남북대화자문위원, 이장희 한국외국어대교수, 정태준목사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이자리에는 각계 종교인 50여명이 참석했다.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거리행진

74개 종교·환경·사회운동단체가 참가한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월 23일 결성대회를 마친 후 모형 골프공과 대장경판을 앞세우고 종각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효림스님, 덕곡면대책위 고영환위원장, 민주주의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등 참가단체 대표 및 실무자 2백여명이 참가했다.



BBS 대탑건립 설명회

종하 불교방송이사장은 9월 19일 신라호텔서 불교방송 개국기념 대탑건립 설명회를 가졌다.

한·중 불교교류 논의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스님은 9월 21일 유서상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장 등 중국 종교담당인사 5명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불교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5사단서 추석위문법회

법산 동대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은 9월 22일 5사단 수색대대를 방문, 추석위문법회를 열었다. 동대교수불자회, 불교문화예술인법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자리에서 스님은 특별법문을 했다.

통일기원 영산 대법회

혜승 의정부사암연합회장(의정부 포교원원장)스님은 오는 5일 시청앞 광장에서 '남북통일기원 영산 대법회'를 봉행한다.

佛 길상사 법사 이임

지묵 프랑스 길상사 법사스님은 오는 13일 길상사 개원 3주년을 맞아 유럽의 스님 불자들을 초청, 기념법회 및 법사 이임식을 가졌다. 스님은 당분간 유럽만행길에 오를 예정이다.

대구 동구시장에 포교당

본원 조계종불교회관 자비원 주지는 오는 3일 효목2동 동구시장내에 포교당을 개원한다.

'깨달음과 화합' 수련대회

법륜 정토포교원장스님은 오는 5, 6일 문경정토수련원에서 '깨달음과 화합의 대축제'를 주제로 깨달음의 장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우수발명전 대통령상

추수욱 울산삼주기계사장(한마음선원 울산지원 고문)이 우수발명품 출품인 '96 우수발명품 전시회에서 '회전운동·등속직선왕복운동 전환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압발생장치'를 출품해 9월 19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범죄…' 정책 세미나

이호식 불교청년실업인회장은 9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범죄와 선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장한어머니상 수상

김명자씨 (52, 삼전사 신도)가 9월 13일 제12회 장애인부모대회에서 자폐부문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했다.

소녀가장에 성금전달

김장근 대구불교산악회장은 9월 25일 추석을 앞두고 소녀가장인 동구 해서초등학교 3학년 김미나양을 방문, 성금을 전달했다.

하이텔불교동호회 시삽피선

한승규씨가 9월 16일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 제6대 시삽에 선출됐다. 한씨는 "하불동 회원간의 만남의 장'과 '전국적 조직망 구축'을 위해 젊은 연령층으로 6대 하불동 운영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음악학 국제회의 몽골악기 연주법 소개



엘든치맥한 몽골교연구소 상임연구원(40)은 9월 19~20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에 몽골대표로 참가해 몽골 전통현악기 야트가의 역사적 고찰, 구조및 연주법에 대해 발표했다. 몽골 국가예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엘든 치맥씨는 9월 23일 열린 '우리는 선우' 자축행사에 참가하고 9월 24일 출국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집행위원 위촉





문화체육부는 9월 19일 '97 문화유산의 해' 관련 행사를 주관할 조직위원과 집행위원을 위촉하고 조직위원회 위원장에 고병익씨(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사진 왼쪽), 집행 위원장에 한병삼씨(前 중앙국립박물관장)를 각각 선임했다.

조직위원은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 이광로(前서울대교수) 임동권(중앙대 명예교수) 정양모(국립중앙박물관장) 김전배(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씨등 모두 16명이며, 집행위원은 임효재(서울대교수) 정기영(문화재관리국장)씨 등 조직위원 가운데 6명이 선임됐다.

게시판

행사 청법회=부산동아대학교 불교학생회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10일 13일 오후2시 교수회관 대강당에서 서암스님 초청 법회를 갖는다. 이날 서암스님은 '참된 삶이란'이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서울청 창립법회=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오는 9일 오후7시30분 조계사내 불교회관에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02)730-9108

강좌 법화경=법화경학술연구원(원장 혜량스님)은 매주 금요일 오후1시30분부터 '법화경 강론' 강좌를 개설한다. 수강료는 무료. (02)927-3910

영어회화=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반을 마련했다. 시간은 매주 월·수 오후4~6시.

덕유복지관은 그외에도 아동공부방, 글쓰기, 과학실험교실, 주부노래교실, 종이접기, 컴퓨터교실 등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032)325-2161

문화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서예 꽃꽂이 가야금 컴퓨터 스텐실 영어회화 상황도예 홈패션 양재교실을 지난 1일부터 개강했다. (042)633-1141

모집 신행회간사=용진신형회(회장 양봉석)는 신행회 업무를 전담할 간사 2명을 모집한다. 30세미만의 불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02)279-1191

부음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과)의 모친인 김종열씨가 9월 21일 오후5시20분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장지는 괴산군 가족묘지. (0343)780-5715

화촉 이수찬씨(대구사원주지연합회 업무과장)는 오는 6일 오전11시 대구 웨딩 알리앙스 3층 비치홀에서 신부 김미현씨와 화촉을 밝힌다. (053)764-8313



경남불교협 초대회장 목산스님

9종단 75사찰 참여 첫 道협의회
'불자단합' 포교활동 전환점 기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점에 종단을 초월해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불교가 해야 할 일을 보다 조직적 구체적으로 해나가는데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9월 22일 결성된 경남불교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목산스님(통도사 주지)의 말이다.

경남불교협의회는 경남의 조계종 천태종 대한법화종 등 9개종단 75개 사찰이 참여해 도단위 조직으로는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이다.

목산스님은 "근간에는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불교도의 단합으로 난관을 극복해야한다"며 "서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불교도의 단합을 당부했다.

스님은 또 "불교 발전은 무엇보다 개개인이 철저한 수행을 통해 자신을 지켜나갈 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외부의 어떠한 난관도 자신의 수행을 통해 극복해야한다"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경남불교가 날로 새롭고 진취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천미희 기자

"정병조 목정배 서윤길 권기종 윤이흠 박경준교수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의를 해주시는데다 캠퍼스 분위기까지 좋아 아주 공부가 잘됩니다. 저뿐 아니라 같이 배우는 도반들 모두 '신심이 새록새록 난다'고 한목소리입니다."

동대 사회교육원 총학생회장 김대중씨

"불교는 평생공부…세미나 정례화"

지난 1일 동대 문화관 지하 그릴에서 열린 동대 사회교육원 신입생 환영연에서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김대중씨(58, 주 한국 H&S 대표이사)는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두와 함께 한국불교 발전과 포교, 동국대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생회 조직을 활성화시켜 신심과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성지순례, 불교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장일로 바쁜 가운데도 '불교전문교육과정'의 화, 금요일 강의를 빠지지않고 참여할 뿐 아니라 불교TV를 통해 '동국TV불교아카데미'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는 김회장은 동산불교대 총동창회장, 칸야라이온스 부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위원등을 맡고 있는등 불교활동이 활발하다. 부인과 두 자녀도 동산불교대학에 다니게 했다는 김대중회장은 "불교공부는 평생공부"임을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세무상담소 설치 불자 이익보호"

한국 세무사불자회 송호승초대회장

"부처님 법에 의지해 무명을 밝히고 하나의 씨앗을 뿌려 가꾸는 마음으로 세무사불자회를 이끌겠습니다."

9월 23일 조계종 총무원내 불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불자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강호승씨(56).

송씨는 1년전부터 발원, 지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구정 세무사등 몇몇 뜻있는 불자들과 함께 창립준비작업에 따른 실무작업을 해왔다.

"세무사불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라는 송씨는 탄탄한 조직결성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또 송씨는 "빠른시일내 서울 경기를 비롯 7곳의 지부를 결성 할 것"이라며 "불자들이 세무와 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상담소를 설치 무료상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중근 기자

"중국불교 알려면 어학 뒷받침 필수"

스님들에 중국어 강의 이인옥씨

"최근들어 중국불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어학교육이 선결과제입니다."

오는 7일부터 2개월동안 매주 월·화·수 세차례에 걸쳐 성북동 청룡암(주지 혜조)에서 스님들만을 위한 중국어 무료강좌를 개설하는 이인옥씨.

82년부터 3년여동안 중국(불광사)에서 어학공부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귀국한 이씨는 "중국어를 처음 배울때 법문을 교재로 활용했다"며 "경전을 주요내용으로 회화공부를 했기때문에 여느 강사들보다 스님들을 위한 교육에는 자신있다"고 말한다.

또 이씨는 "중국불교에 보다더 근접할 수 있으려면 언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님들을 위한 중국어 강좌가 효과가 높으면 재가불자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근〉



맑고 향기로운 삶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를 모십니다

(청소년회관 건립기금 조성)



<전화주문시 우편배달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요,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진실하고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가정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을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바라밀포교원장」 효종스님은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기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우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을 위한 장소가 없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소년회관 건립의 대원력을 세웠습니다.
효종스님은 청소년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모아 자비동자상을 그려 집집마다 동자상 모시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실이나 공부방 벽에 걸린 한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자비심을 가꾸며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실한 희망을 갖게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와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정마다 자비동자 한점씩 모시기 운동에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자비동자 한점 : 20,000
■ 주 최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보 급 처 : 부산지부 (051)633-6412~3 진주지부 (0591)758-6611
서울 (02) 597-2055~6

공 고

용성문도회 회의 개최 소집의 건

귀의 삼보하옵고
중생구제와 정법수호불사에 전념하시는 용성문도회 큰스님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앙축하나이다.
금번 용성문도회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개최하오니 불사중에 바쁘시더라도 필히 참석하시어 용성문도회 제반불사에 협조하여 주시옵길 바라나이다.

-- 아 래 --

■ 일 시 : 1996년 10월 3일 14:00
(음력 8월21일)
■ 장 소 : 대각사(서울 봉익동 소재)
■ 연 락 처 : (051)508-3122
(0599)32-7308
(02)765-0972, 744-4502~4

1996. 9.

용성문도회 회원일동 합장

※ 개별통지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한복의 아름다움 '세계로 미래로'

산문밖의 禪

한복 디자이너 **이 영 희** 씨



전시장에 연등·장독대등 설치
과거를 통해 현재의 가치 전달
한국美의 상징 한복 '세계인 감탄'

디자이너는 하늘빛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표면의 색에만 감동해서는 안된다. 하늘의 무한함과 그 위를 자유로이 흘러 다니는 하얀 구름과 이글거리는 태양, 깊은밤에 반짝이는 별빛과 달님의 미소 그리고 저 우주 깊숙한 곳의 고요함까지도 동시에 떠올리면서 디자인에 임해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의 깊이를 관(觀)하라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는 것이 어쩌면 디자이너의 업(業)인지도 모르겠다.

가볍고 투명하지만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환한 밝음으로, 투박한 듯 하면서 아한 색감을 한복에서 일궈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색보다는 돌바위 틈새에 자란 이끼색이나 미중에 흔들리는 겨울소나무의 푸른색, 고요한 절간을 가득채운 고동색, 수행승들의 고행을 대변하는 회색등 이씨의 색깔에 대한 변화와 고집은 '이영희 색'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어냈고, 이같은 토대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복의 선 '이영희 라인'이 탄생, 고유의 디자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이른다.

"전통은 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 정갈어린 자연의 순수함을 아름다운 선의 미학으로 되살린 한민족의 옷, 한복. 한복디자이너에게 있어 자연을 관하고 그 속에 공존하는 삼라만상의 과거와 현재를 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작업의 과정이다.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60) 또한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과거의 전통과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이라는 방법으로 통찰해 낸다.

"지난 것에서 소재를 찾곤 합니다. 과거 없이는 현재의 가치를 찾을 수 없지요. 과거가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씨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관련 책들을 보며 그 시대의 벽화로부터 자연색상과 디자인에 관한 많은 영감을 얻는다.

현대화라는 이름아래 현란한 색상의 한복이 난무하는 요즘 '이영희 한복'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는 '자연' '벽화'와 '절(寺)'이 갖고 있는 색감들에서 유추해내 그 섬세하고 우직접 느껴야하고, 또다시 지금 현재 재현해내야 합니다"라 말하는 이씨는 자신의 이같은 신념을 지난 7월 파리 룩상부르궁 오랑제리 전시장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예술과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열린 '한복-바람의 옷' 전시회는 궁중의상, 전통결혼의상, 서민복, 승복, 무녀복이라는 5개의 테마로 꾸며져 단순한 한복전시회가 아닌 한국문화를 눈푸른 서양인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이씨에게도 변화와 창조의 끊임없는 도전의 현장이 되었다.

"파리에서 한복 전시회를 열기위해 수년동안 파리 패션가에 공을 들이고 이미지 작업을 했습니다. 전시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지요. 전시장에는 장독대와 궁궐, 절(寺), 전통결혼식의 모형을 모두 만들었고, 전시장 마네킹의 머리를 손질하는데도 10명의 미용사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곳곳을 한국의 전통적인 물건들인 장독과 버선, 노리개, 청사초롱, 연등 등으로 꾸며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노력으로 한복과 어울린 우리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복(Hanbok)'이라는 고유영어스펠링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도 했다.

식물에서 뽑아낸 실로 짠 흰 모시 블라우스와 자신이 직접 제단한 비단 조끼를 즐겨입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씨는 1976년 처음으로 한복디자인과 제작에 뛰어들었다. 83년 워싱턴, 85년 오사카, 86년 브뤼셀, 88년 밀라노와 뉴욕, 모스크바에 이어 93년에는 드디어 세계 패션의 메카인 파리서 전시회를 갖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전했다. 또 94년에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파리 바끄거리 109번지에 부띠끄까지 마련하고 세계패션가에 한복을 패션상품으로 정착시켰다.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일년에 1천5백여점의 한복을 제작, 옛날 옷을 새롭게 발전시켜 현대에 그리고 미래에 접목시키고 있는 이씨는 1년에 한두번은 꼭 통도사 서운암을 찾아 성파스님과 더불어 천연염색을 하며 정신적 충전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절에 들어서면 마치 제 집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낍니다. 숲과 절의 기와 지붕을 보면 색상들이 공기속을 날고 있는 듯 하고, 제 마음은 어느새 뿌듯해 집니다"라는 그녀는 진자주빛 염색 통속에 손을 넣으며 노력과 환희의 흔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색감을 만나고 또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도 얻는다.

"우리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이영희 한복'이 아닌 한국의 옷 한복을 말이지요.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 세대에서는 한복이 세계 최고의 옷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영희씨의 평생 원력이다.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우리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널리 알려 서양인들이 스스로 우리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뤄지지 않겠냐며 활짝 웃는 그녀의 꿈은 세계사람들 모두에게 한복을 입히는 일이다.

이은자 기자

"가장 한국적인 전통서 색·디자인 영감 얻어요"
'현상에 집착말고 내면을 보라' 더없는 가르침

한마음이면 해탈도 함께 되는지

문 주인공을 찾음은 길흉화복의 해결보다 생사와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주인공자리가 하나로 같아 한마음이라 하시는데 선문염송 233칙에 천동각선사가 밝힌 주인공자리와 오대산 무착스님의 깨달은 이후의 말씀, '문수는 네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다' 한 것을 보면 깨달은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한마음이라 하면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큰스님께서 이미 깨달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셨다면 중생들은 놓아두고라도 한마음의 제자들만이라도 이미 해탈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주인공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옳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광주직할시 두암동〉

답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에게는 불성이 갖들어 있으니 일체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생은 누구나 부처될 성품을 갖추었고 그것은 깨닫고 못깨닫고에 관계없는 근본성품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닦은 결과로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금생의 근본 성품이 부처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달리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동안 어둠에 잠겨 있던 동굴에 촛불하나 밝히니 어둠은 본래 있던 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본래 성품이 불성임을 깨닫고 보니 부처와 둘이 아니요 그냥 한자리 한마음이더라 이겁니다. 네마음 내마음 하지만 그것은 객진번뇌에 물들어 있을 때이고 참성품의 자리에선 그대로 회통이 되니 내마음 네마음이 없고 그냥 광대무변하여 공이고 한마음이고 이곳 저곳이 없이 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자리 한몸입니다. 그걸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음이라 해도 좋고 그냥 부처라 해도 되고, 개별적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자리라 해도 되고 참나라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니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시든지 하느님 하시든지 여래 하시든지 다 좋습니다. 〈금강경〉 말씀에 여래를 명호로 보느냐 색·소리로 보느냐 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주인공이라 한 것도 이름인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찾고 바깥부처에 의지하려하니까 안으로 들이대라는 뜻에서 주인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선사들이 다 안으로 일심을 말하는 까닭을 아실겁니다.

또 깨달은 자리에서 경계를 대하니 공과 색이 둘이 아니기에 색은 색대로 좋더라, 여여하더라,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문수는 네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더라 하는 소리지요. 박선생께서 깨닫고 나니 박선생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요?

근본에서 둘이 아니요 한마음인 고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요, 공과 색이 다르지 않지만 색이 무너져 공이 된다고 한다면 어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란 말을 하겠습니까?

일체중생엔 다 부처될 성품이 있어 근본에서 한마음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맛을 보고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더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게 아닙니다. 본래는 다 같은 허공인데 스스로 벽을 쌓아 경계를 단단히 해놓았으니 그 벽을 헐고 본래 허공에 경계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스승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 닭이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껍질을 쪼아주기도 하듯이 스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의 성품이고 몫입니다. 스승이 깨달았고 한마음 한자리이니 따라서 제자도 다 해탈했어야지 왜 수행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시는데 그 말씀은 문자에 걸린 말씀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서원이 대자대비요 일체중생을 다 건지시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는 더이상 수행할 중생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맞습니다만.

삼계란 어느 곳입니까

문 삼계가 18계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또 증으로 있는지 횡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호현·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답 삼계니 18계니 하는게 어디 금을 긋듯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냥 한마음입니다. 안이다 밖이다 구분이 없고 어제다 오늘이다가 없습니다. 허공을 가리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마음은 그냥 전체입니다. 전체라서 이쪽저쪽이 따로 있질 않고 어제 오늘,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중중무진의 세계란 이 세계 속에 저 세계가 있고 저 세계 속에 이 세계가 있으니 이 세계 저 세계가 그냥 하나요 전체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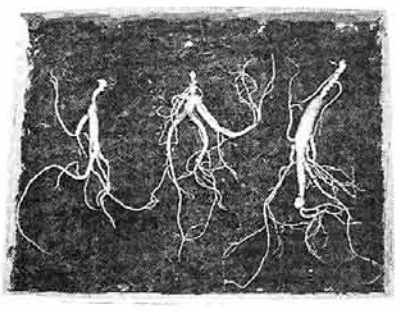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저런 용어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수행에 도움이 될까해서 이 그림 저 그림 보여주는 것일뿐 그냥 백지 한장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용어에 걸리지 마세요.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長腦(장뇌) 山蔘



강원도 홍천 임업협동조합 조합원 생산품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 수험생, 운동선수, 병후 몸조리를 하시는 불자님께 최상품 산삼을 최저가격으로 인연을 맺어드겠습니다.

장뇌산삼의 효능

- 산삼과 더불어서 신비한 원력을 주는 것으로 현대과학으로도 명확하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동의보감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신장질환, 뇌졸증, 당뇨, 간장질환, 거고혈압, 신경쇄약, 빈혈, 자궁질환, 강정효과, 심혈관기능부전, 소화불량, 종양등에 뚜렸한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 눈이 맑아지며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줍니다.

※ 특전 : 각종 자연건강 보조식품 및 보약을 염가로 알선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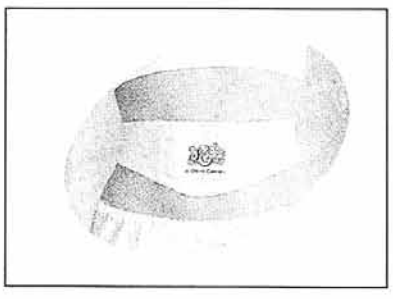
◐ 별도상담
- 자연산삼,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봉삼문의
- VIP단체선물 환영

※ 그동안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관심은 있었으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접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⑮

想用功辦道 先要一個堅固信心
상용공판도 선요일개견고신심
信爲道元功德母
신위도원공덕모
無論 作甚麼事 沒有信心 是作不好的
무론 작심마사 몰유신심 시작불호적
我們 要了生死脫 尤其要一個堅固信心
아문 요료생사탈 우기요일개견고신심
佛說 大地衆生 皆有如來智慧德相
불설 대지중생 개유여래지혜덕상
只因妄想執着 不能盡得
지인망상집착 불능증득
又說 了種種法門來 對治衆生的心病
우설 료종종법문래 대치중생적심병
我們 就當信佛語不虛 信衆生皆可成佛
아문 취당신불어불허 신중생개가성불
但我們爲甚麼不成佛呢
단아문위 심마불성불니
皆因未有如法下死功夫呀
개인미유여법하사공부아

생각컨대 공부에 힘써 도를 이루는데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신심이 제일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뭐라고 논할것도 없이 신심이 없으면 이는 좋지 않다.

우리들이 생사문제를 해탈하자면 더우기 견고한 신심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모든 중생에다 여래의 지혜덕상이 있지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득하지 못한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갖가지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은 중생의 마음병을 맞게 다스리고자 함이라 하셨다.

우리들은 마땅히 부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고 믿어야하며 중생은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뭣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 여법하게 공부를 하지 못한 까닭이다.

譬如 我們信知 黃豆可造豆腐
비여 아문신지 황두가조두부
爲不去造他 黃豆不會自己變成
이불거조타 황두불회자기변성
豆腐即使造了
두부즉사조료
石膏放不如法 豆腐也會造不成
석고방불여법 두부야회조불성
若能如法譬煮去造
약능여법마자거사
放適量的石膏 決定可成豆腐
방적량적석고 결정가성두부

비유하자면 알다시피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그대가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면 콩이 스스로 변해 두부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간수를 여법하게 넣지 않으면 두부는 만들어 지지 않는데

만약 법답게 갈고 끓이고 찌꺼기를 걷어내고

알맞게 간수를 넣으면 결정코 두부를 만들수 있게 된다.

修道亦復如是 不用功固然 不可以成佛
관도역부여시 불용공고연 불가이성불
用功不如法 佛也是不能成
용공불여법 불야시불능성
若能如法修行 不退不悔 決定可以成佛
약능여법수행 불퇴불회 결정가이성불
故我們應當須信 自己本來是佛
고아문응당심신 자기본래시불
更應須信依法修行 決定成佛
경응심신의법수행 결정성불

도를 이룸도 또한 이와같아서 힘쓰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고

여법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만약 법답게 수행하여 물러나지 않고 뉘우칠 일 없다면 결정코 성불할 수 있다.

"우리들은 뭣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나 부처님말씀 믿어 여법하게 수행하라"

고로 우리들은 마땅히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깊이 믿어야 하고

또한 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리라는 것을 깊이 믿어야만 한다.

永嘉禪師說 證實相 無人法
영가선사설 증실상 무인법
刹那滅谷阿鼻業
찰나멸 곡아비업
若將妄語誑衆生 自招拔舌塵沙劫
약장망어광중생 자초발설진사겁
他老人家慈悲 要堅定後人的信心
타노인가자비 요견정후인적신심
故發如此宏誓
고발여차굉서

영가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의 본래면목을 증득하면 인상, 법상이 없고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도 없어진다.

만약 망녕된 말로 중생을 속였다면 내 스스로 발설지옥에 떨어져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겁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 하였다.

저 선사의 자비는 뒷 사람의 신심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니

고로 이같이 엄청난 서원을 발한 것이다.

龍眼

10월은 문화의 달

"부처님 가르침 찬탄

송암스님 〈봉원사 주석〉



약력

- 1914년 서울 봉원사서 출생
- 19세부터 월하스님으로부터 영산재의식 사사받음
- 73년 11월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 현재 영산재 후진양성과 각종 시연회를 이끌고 있으며 봉원사 주석

"온세상 곳곳에서 부처님 찬탄하는 소리 하루도 끊이질 않아야 일체중생 성불 해탈"

8년전 나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을 순회하며 영산재를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의 나라들을 다니며 시연을 했는데 그때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시연이 진행되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담당자가 한국의 범패란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하고 준비된 팜플렛에 소개된 시연의 내용과 의미가 그들에게 범패를 알게 하는 정보의 전부였는데 그들의 관람자세는 너무나도 진지했던 것입니다. 범패의식을 처음 접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게 시연을 보는 것을 보고 나는 여러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진지했던 것일까요.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적 정서 속에 사는 그들에게 범패의식은 새로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색다른 종교의식을 보는 경외심도 적지 않았을 것이지만 정작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그토록 장엄한 의례를 봉행한다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와 망자의 영혼에 대한 생각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진지한 것인가 봅니다.

나는 평생을 범패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봉원사에서 나서 이곳 이외의 절에서는 살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범패 하나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도 나에게는 복이라면 큰 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더러 범패란 말을 들어 봤을 것이고 시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재의식을 하나보다"하고 지나쳐 버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영산재는 부처님의 장엄한 영산회상을 상징화하는 불교만의 독특한 의례입니다. 영산회상이란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 부처님 설법을 듣는 대중들의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화 한다는 것은 충만한 부처님 회상의 법열과 환희심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 재의식이 행해졌고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산재는 우리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불자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운 절차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영산재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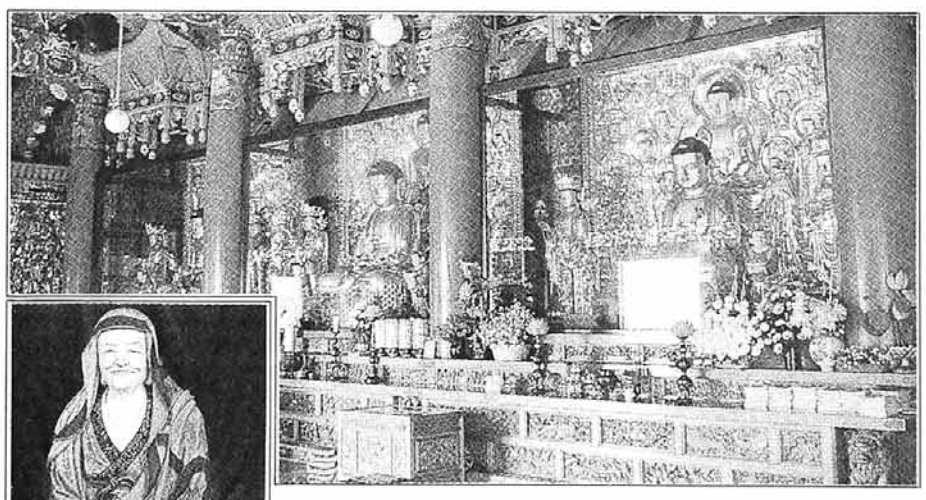
영산재를 보게되면 여러분은 두가지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동공발심(同共發心)과 동출극락(同出極樂)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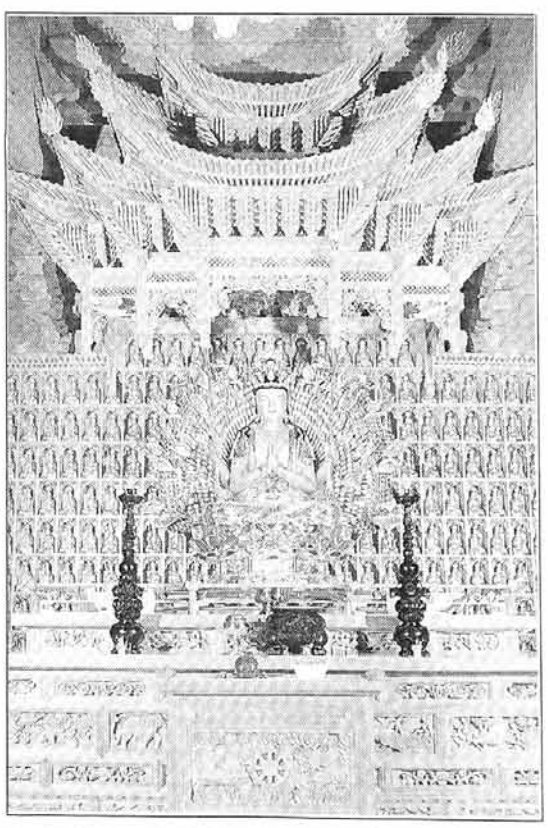
영산재는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나 그 의식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의식의 주관자(재를 청한 사람) 모두가 한마음이 될 때 진정한 의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법회에서 동참자들의 마음이 각각으로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재의 주된 목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재는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엄한 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공덕이 어찌 망자에게만 미치겠습니까. 참여대중 전체의 공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공덕에만 얽매일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수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 죄업을 소멸하지 않고는 성불을 할 수 없습니다. 성불의 원을 세운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죄업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죄업소멸의 발심이 없이는 성불의 발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영산재는 지나온 인연의 죄업을 씻고 다가올 인연의 선업을 닦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49재를 지내고 천도재를 지내는 것만이 영산재인 줄 알고 계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일체중생의 죄업을 소멸시키고 일체중생의 선업을 선양하는 경건한 의식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닦는 수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공발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발심을 하는 것이 이 재의식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심 속에 선망부모의 천도가 들어가고 나의 마음을 밝히는 서원이 들어가고 후손과 일체의 생명이 복락을 누리길 바라는 염원이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심은 곧 공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라 합니다. 깨달음은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데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밝히려는 의지만 굳으면 방편은 무수한 것 아닙니까. 범패도 현생의 생명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마음 닦는 수행이죠”

나와 망자 그리고 뭇생명위해
이고득락 발원할때 법계는 극락정토

영산재는 일체중생 죄업소멸과 선업닦는 의식
“내실 튼튼하면 비록 형식 초라해도 공덕은 무량”

죽은 영혼의 깨달음을 갈구하는 여법한 의식이기에 공부라면 큰 공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출극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락을 가길 염원하되 혼자 갈 것을 염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나아가길 염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망자를 위해 여러 생명을 위해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발원할때 중생계는 극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군에 간 아들을 면회가는 부모는 아들을 위해 좋은 음식을 장만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먹이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의 것까지 한 보따리를 싸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함께 근무하는 전우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면회 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동출극락의 마음인 것입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동출극락의 원을 세우고 청정수행을 하는 순간 이 법계는 그대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영산재를 한갓 불교전통의식이라고 여기고 그 기능인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 가는 것을 서원하는 자리에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 세상에 하루도 법패의 찬탄곡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내게 법패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또 가르치고 다시 배운 사람이 다른이에게 가르쳐서 온 세계인이 법패를 화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 법계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일체중생의 해탈성불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동공발심과 동출극락이 한 마당에서 이뤄질 수 있을때 영산회상의 큰 가르침이 우리의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대법입니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는데서 일체 중생의 성불도 가능해 진다는 것을 영산재를 보며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며칠씩 재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간소화 해서 시연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의 시간이 아니라 그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짧은 순간 재에 임해서도 법계를 해탈시킬 발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유럽의 이민족들이 이러한 마음의 의식에 매료되었던 것은 불교만의 독특한 사상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범패를 일생동안 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규모에 상관없이 마음닦고 일체중생이 이고득락하길 염원하며 의례를 집전해 왔습니다. 외형에 속으면 내실이 없습니다. 내실이 튼튼하면 형식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공덕은 무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불자들은 마음을 잘 쓰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경전의 말씀을 한 마디도 듣지 않았어도 한 시간의 참선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을 바로 쓰면 그 사람이 참된 부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생자나 망자를 위한 지극한 마음을 내는 그 자리에서 법계는 청정해 지는 것입니다.

재를 청해 오는 사람 가운데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오히려 기복도 못됩니다. 선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만 그치지 말고 일체중생의 극락왕생을 함께 발원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 하는 뜻을 잘 새겨 두셔야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조사님들이 밝혀 두셨지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순진무구가 우리마음의 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지는 그 순간의 순진무구를 찾아야 합니다. 살아가며 온갖 더러움에 물든 마음을 다시 순진무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때가 묻지 않으니까요.

더러 윤달이 드는 해에는 재가 많아 몹시 바쁘게 됩니다. 윤달이 좋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발심을 하는데 윤달이 좋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발심은 언제해도 좋은 것입니다. 때와 장소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선망자의 천도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심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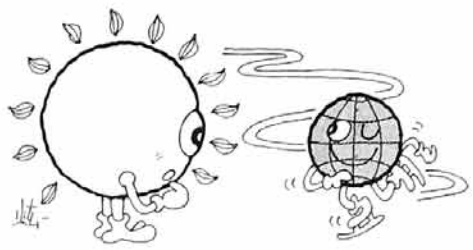
겠습니까. 그렇게 합심발원을 하는 것이 불자들에게는 수심(修心)의 기회가 되고 또 포교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찰 경내가 아니라 무대나 노천극장에서 시연을 하더라도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 그대로 들이나 마당에 차려진 법도량으로 이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산재를 펼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이미 부처님 도량입니다. 이 법계가 다 부처님 도량이지만 재를 위해 괘불을 걸고 향을 사루고 법사를 모신 그 자리는 여법한 도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량이 정말 청정해 지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대중의 청정한 발심이 필요합니다. 재를 지내며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이 앞서는 것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영산재는 참여대중의 마음이 하나 같이 청정하고 일체중생의 성불해탈을 염원해야 합니다. 합심성공(合心成功)의 도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학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생을 범패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공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성불을 하겠다는 큰 생각보다는 이 공부를 하고 여러 재를 주도한 공덕으로 나와 일체중생(망자까지도)이 해탈성불의 인연 씨앗을 맺길 바랄 뿐입니다. 씨앗이 맺은 곳에서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니 이 법계의 모든 중생이 동출극락할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영산재를 보거나 또는 재를 청하여 주관을 하게될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두서없이 얘기 했습니다. 다 이야기 한 것이지만 의식의 외형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실한 마음으로 지극히 재에 동참하라는 당부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살아가며 온갖 더러움에 물든 마음
> 어머니 뱃속서 떨어지는 그 순간의
> 순진무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 어떤 때도 묻질 않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7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4)

색(色)의 의미

“사리자야 무엇을 색이라고 하느냐”
색은 실재하지 않는 ‘관찰자의 아집’

“…색즉시공 …무색…”이라고 경전이 설할 때 분별지로 경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我)’에 집착한 나머지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 “이것이 색(色)이요”하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얻고자하면 상(相)을 버리라고 〈금강경〉은 설하고 〈반야심경〉은 오온이 공한 것을 반야로 비추라고 설하는 것이다. 색(色)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사람의 아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절대시공간을 부정하고서 사람마다 즉 ‘아(我)’마다 자기가 처한 상태에 따라 물질과 시공간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본 물질과 시공간중 누가 본 것이 더 옳다는 것이 없고 다 옳다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상대성이론이다. 객관적 시공간도 없고 객관적인 물리현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 보는 시공간과 물질이 존재할 뿐이다.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을 ‘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질이 존재하든 말든 텅빈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 공간중에 별들이 점점히 흩어져 있고 물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물질이 실체이고 이 실체에 모양이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공간에도 모양이 있고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물질을 떠나 시공간을 생각할 수 없고 시공간을 떠나 물질을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시공간 중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운동과 변화는 그것을 경험하는 ‘아’를 떠나 생각할 수도 없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은 잘 맞는다. 한때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맞는다.

그러나 상대성이론의 설명은 다르다. 누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모양이 생긴대로 지구는 자유롭게 운동한다. 공간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에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 뿐이다. 그리고 공간의 모양을 그렇게 만든 것은 태양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평평하게 잘 닦여진 바닥에서 공을 굴리면 공은 똑바로 나간다. 이 바닥에 불룩 솟아나온 산이 있다면 공은 산주위를 돌아서 굴러갈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면 무슨 힘이 있어 공을 산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반대로 오목한 골이 있다면 공은 오목한 쪽으로 굴리는 것처럼 굴러갈 것이다. 공은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공이 운동하는 공간의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시공간은 모양을 갖고 있다. 이 모양은 물질이 만든다. 태양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면 빛이 지나가는 길도 휘어지게 만든다. 지구상에서 빛을 쏘아 보내면 직진한다. 그것은 지구주위의 공간이 평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이나 그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주위로 빛이 진행할 때는 진로가 휘어진다. 그것은 태양이나 별들이 주위의 공간을 휘어 놓았기 때문에 빛을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그 진로가 휘어지는 것이다. 또 한 시간의 길이도 중력이 강한 곳과 약한 곳 사이에는 다르게 나타난다. 질량이 큰 별주변에서 진행하는 시간의 길이는 질량이 작은 지상에서 진행하는 시간의 길이와 크게 다르다. 별에서 진행된 시간이 1초라할지라도 지구상에서는 몇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말하는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이 시공간의 모양을 만들고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물질의 운동이 결정되기에 물질과 시공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만을 색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아집에 불과한 것이다. “…색즉시공…무색…”이라고 경전이 설할 때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리자야, 너는 무엇을 색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네가 만든 것이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 · 류마티스 · 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암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부산.경상남북도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0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은기를 강하고 좋은 은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악했던 은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좋아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어떠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십중팔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靈(영)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방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틈끊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믿음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마음 닦는 수행이죠”

나와 망자 그리고 뭇생명위해
이고득락 발원할때 법계는 극락정토

영산재는 일체중생 죄업소멸과 선업닦는 의식
“내실 튼튼하면 비록 형식 초라해도 공덕은 무량”

죽은 영혼의 깨달음을 갈구하는 여법한 의식이기에 공부라면 큰 공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출극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락을 가길 염원하되 혼자 갈 것을 염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나아가길 염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망자를 위해 여러 생명을 위해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발원할때 중생계는 극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군에 간 아들을 면회가는 부모는 아들을 위해 좋은 음식을 장만해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먹이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의 것까지 한 보따리를 싸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함께 근무하는 전우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면회 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동출극락의 마음인 것입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동출극락의 원을 세우고 청정수행을 하는 순간 이 법계는 그대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영산재를 한갓 불교전통의식이라고 여기고 그 기능인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 가는 것을 서원하는 자리에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 세상에 하루도 법패의 찬탄곡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내게 법패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또 가르치고 다시 배운 사람이 다른이에게 가르쳐서 온 세계인이 법패를 화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 법계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일체중생의 해탈성불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동공발심과 동출극락이 한 마당에서 이뤄질 수 있을때 영산회상의 큰 가르침이 우리의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대법입니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는데서 일체 중생의 성불도 가능해 진다는 것을 영산재를 보며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며칠씩 재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간소화 해서 시연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의 시간이 아니라 그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짧은 순간 재에 임해서도 법계를 해탈시킬 발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유럽의 이민족들이 이러한 마음의 의식에 매료되었던 것은 불교만의 독특한 사상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범패를 일생동안 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규모에 상관없이 마음닦고 일체중생이 이고득락하길 염원하며 의례를 집전해 왔습니다. 외형에 속으면 내실이 없습니다. 내실이 튼튼하면 형식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공덕은 무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불자들은 마음을 잘 쓰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경전의 말씀을 한 마디도 듣지 않았어도 한 시간의 참선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을 바로 쓰면 그 사람이 참된 부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생자나 망자를 위한 지극한 마음을 내는 그 자리에서 법계는 청정해 지는 것입니다.

재를 청해 오는 사람 가운데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오히려 기복도 못됩니다. 선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만 그치지 말고 일체중생의 극락왕생을 함께 발원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 하는 뜻을 잘 새겨 두셔야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조사님들이 밝혀 두셨지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순진무구가 우리마음의 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지는 그 순간의 순진무구를 찾아야 합니다. 살아가며 온갖 더러움에 물든 마음을 다시 순진무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때가 묻지 않으니까요.

더러 윤달이 드는 해에는 재가 많아 몹시 바쁘게 됩니다. 윤달이 좋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발심을 하는데 윤달이 좋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발심은 언제해도 좋은 것입니다. 때와 장소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선망자의 천도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심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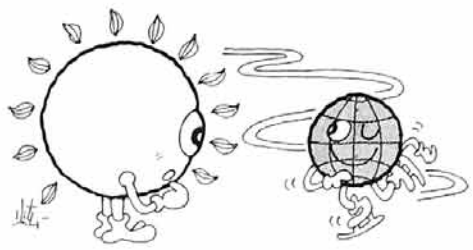
겠습니까. 그렇게 합심발원을 하는 것이 불자들에게는 수심(修心)의 기회가 되고 또 포교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찰 경내가 아니라 무대나 노천극장에서 시연을 하더라도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 그대로 들이나 마당에 차려진 법도량으로 이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산재를 펼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이미 부처님 도량입니다. 이 법계가 다 부처님 도량이지만 재를 위해 괘불을 걸고 향을 사루고 법사를 모신 그 자리는 여법한 도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량이 정말 청정해 지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대중의 청정한 발심이 필요합니다. 재를 지내며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이 앞서는 것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영산재는 참여대중의 마음이 하나 같이 청정하고 일체중생의 성불해탈을 염원해야 합니다. 합심성공(合心成功)의 도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학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생을 범패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공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성불을 하겠다는 큰 생각보다는 이 공부를 하고 여러 재를 주도한 공덕으로 나와 일체중생(망자까지도)이 해탈성불의 인연 씨앗을 맺길 바랄 뿐입니다. 씨앗이 맺은 곳에서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니 이 법계의 모든 중생이 동출극락할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영산재를 보거나 또는 재를 청하여 주관을 하게될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두서없이 얘기 했습니다. 다 이야기 한 것이지만 의식의 외형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실한 마음으로 지극히 재에 동참하라는 당부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살아가며 온갖 더러움에 물든 마음
> 어머니 뱃속서 떨어지는 그 순간의
> 순진무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 어떤 때도 묻질 않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7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4)

색(色)의 의미

“사리자야 무엇을 색이라고 하느냐”
색은 실재하지 않는 ‘관찰자의 아집’

“…색즉시공 …무색…”이라고 경전이 설할 때 분별지로 경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我)’에 집착한 나머지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 “이것이 색(色)이요”하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얻고자하면 상(相)을 버리라고 〈금강경〉은 설하고 〈반야심경〉은 오온이 공한 것을 반야로 비추라고 설하는 것이다. 색(色)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사람의 아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절대시공간을 부정하고서 사람마다 즉 ‘아(我)’마다 자기가 처한 상태에 따라 물질과 시공간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본 물질과 시공간중 누가 본 것이 더 옳다는 것이 없고 다 옳다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상대성이론이다. 객관적 시공간도 없고 객관적인 물리현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 보는 시공간과 물질이 존재할 뿐이다.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을 ‘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질이 존재하든 말든 텅빈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 공간중에 별들이 점점히 흩어져 있고 물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물질이 실체이고 이 실체에 모양이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공간에도 모양이 있고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물질을 떠나 시공간을 생각할 수 없고 시공간을 떠나 물질을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시공간 중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운동과 변화는 그것을 경험하는 ‘아’를 떠나 생각할 수도 없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은 잘 맞는다. 한때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맞는다.

그러나 상대성이론의 설명은 다르다. 누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모양이 생긴대로 지구는 자유롭게 운동한다. 공간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에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 뿐이다. 그리고 공간의 모양을 그렇게 만든 것은 태양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평평하게 잘 닦여진 바닥에서 공을 굴리면 공은 똑바로 나간다. 이 바닥에 불룩 솟아나온 산이 있다면 공은 산주위를 돌아서 굴러갈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면 무슨 힘이 있어 공을 산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반대로 오목한 골이 있다면 공은 오목한 쪽으로 굴리는 것처럼 굴러갈 것이다. 공은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공이 운동하는 공간의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시공간은 모양을 갖고 있다. 이 모양은 물질이 만든다. 태양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면 빛이 지나가는 길도 휘어지게 만든다. 지구상에서 빛을 쏘아 보내면 직진한다. 그것은 지구주위의 공간이 평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이나 그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주위로 빛이 진행할 때는 진로가 휘어진다. 그것은 태양이나 별들이 주위의 공간을 휘어 놓았기 때문에 빛을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그 진로가 휘어지는 것이다. 또 한 시간의 길이도 중력이 강한 곳과 약한 곳 사이에는 다르게 나타난다. 질량이 큰 별주변에서 진행하는 시간의 길이는 질량이 작은 지상에서 진행하는 시간의 길이와 크게 다르다. 별에서 진행된 시간이 1초라할지라도 지구상에서는 몇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말하는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이 시공간의 모양을 만들고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물질의 운동이 결정되기에 물질과 시공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만을 색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아집에 불과한 것이다. “…색즉시공…무색…”이라고 경전이 설할 때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리자야, 너는 무엇을 색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네가 만든 것이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 · 류마티스 · 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암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부산.경상남북도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0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은기를 강하고 좋은 은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악했던 은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좋아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어떠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십중팔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靈(영)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방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틈끊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믿음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치가 원인…마음닦는 노력을"

박남진씨 '우울증치료 불교적 접근' 발표 '다보 가을호'

절망·무력·의욕상실 業쌓은 결과
도시마다 선방개설 "건강생활 돕자"

현대인에게 우울증장애가 늘고 있다. 가중되는 스트레스, 심화되는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열등의식 등으로 인해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에 걸쳐 우울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울증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연이어 출간되는가 하면 각 매스컴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 예방과 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 장애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을 불교적 시각에서 접근한 기고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박남진씨(신경정신과 의사)는 계간 〈다보〉 가을호(통권 19호)에 '현대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불교적 접근'을 기고, 현실감에 대한 투철한 의지, 자신을 바로 관(觀)하는 힘이 있느냐가 치료에 중요한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본래 청정자리인 마음이 구름속에 갇힌 달처럼 청정하지 못하고 탐진치에 의해 우울증이 시작된다고 본 박남진씨는 우울증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는데서 흔히 나타나며 그렇기에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머물고 주재하며, 누구에게나 마음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의 내면속에 내재한 공격적 파괴본능과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중생심 그 자체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의욕상실, 절망감, 무력감 등의 우울증 증상 역시 자신의 마음자리를 열지 못하고 업을 계속해서 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업을 짓는 일을 멈추고, 이미 쌓여진 업장을 소멸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생불멸과 인과응보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자기 발끝을 쳐다보라'는 불교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행로를 정해 올바른 제길로 갈 수 있도록 자기 발끝 움직임을 놓치지 않을 때만이 의욕상실이나 현실감 결여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누구에게나 일생을 통해 한번 또는 두번 이상 겪는다는 우울증.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선방을 찾아 참선을 통해 자신을 찾는 방법이 매우 좋은 방편이라고 제시한 박씨는 특히 각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인에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도시마다 선방을 보다 많이 만들자고 제안한다.

삶의 목적을 뚜렷이 세워 마음의 행로를 정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로 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간혹 좌절이 있을지라도 의욕상실이나 현실감 결여는 금방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우울증 치료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업을 벗어나기 위해 꾸준한 구도의 길을 찾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남진씨

한명우 기자

효봉스님 30주기 추모展

유품전·묵영집 발간·일대기 재간행

9일부터 불일미술관

◇추모전에 나올 효봉스님의 휘호.

초대 통합종단의 종정을 지낸 효봉스님(1888~1966)의 열반 30주기(10월 13일)를 맞아 스님의 삶과 수행의 자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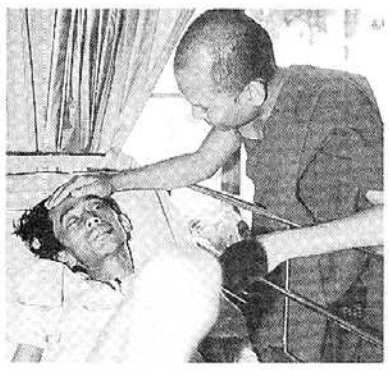
효봉스님추모전추진위원회(위원장 현호스님)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효봉대종사열반 30주기 추모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스님의 묵영집(墨影集)도 발간하며 동아일보사에서 지난 91년 발간한 근대인물한국사시리즈 일환으로 편찬된 〈효봉선사〉(김용덕 지음)일대기도 재간행할 예정이다.

한국인 최초의 판사생활을 하였으나 인생에 대한 회의를 절감하고 1925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석두스님을 은사로 출가, '절구통수좌' '無자 老長'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수행정진에 전념한 효봉스님은 정화불사를 이끌었고 조계종 초대 종정과 해인사 가야총림의 초대 방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개안된 희귀 자료사진과 효봉스님이 쓴 선시, 법성게, 그림, 경봉·탄허스님등 한국근세불교의 대선사들과 주고 받은 서간문, 스님이 남긴 유품 등 총 1백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효봉대종사 30주기 추모재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송광사 효봉영각에서 봉행된다. 〈숙〉

「불교와 도시문화」 19일 세미나

보조사상연구원은 오는 19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법련사 영산대법전에서 '불교와 도시문화'를 주제로 제9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불교와 도시(정병조 동국대교수) △산간불교와 도시불교(최병헌 서울대교수) △외국의 도시불교(이법산 동국대교수) △한국도시불교의 문제와 방향(홍사성 불교TV 제작국장) △도시불교의 문화적 사명(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발표된다.



◇태국수도 방콕에서 2시간정도 떨어진 록부리 지방의 와브라파남프사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고있는 아룡록스님.

에이즈환자 돕는 태국스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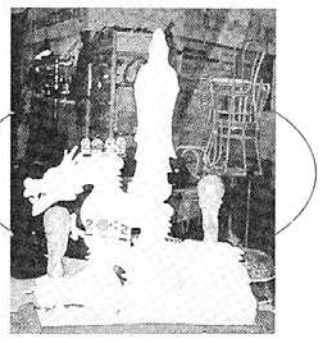
Q채널 '아시아리포트'… 10월 11일 방영

KBS MBC SBS 등에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해 왔던 다큐멘터리 전문채널인 케이블 Q채널(채널25)이 지난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아시아 각 지역의 핫 이슈들을 밀착취재한 '아시아 리포트'를 방영한다.

'아시아 리포트'는 취재지역에 PD들이 혼자 소형 카메라를 몸에 숨기고 들어가 취재와 촬영 편집 현지리포트까지 겸하는 1인다역의 작업과정을 거쳤다.

오는 10월 11일 밤 11시30분 '태국의 에이즈 절망과 희망'(PD 최병화)에서는 버려진 말기에이즈환자들을 보살피는 아룡록스님의 모습이 방영될 예정이다.

아룡록스님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록부리지방의 와브라파남프사원에서 20여명의 스님들과 함께 6년째 에이즈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에이즈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스스로 인정하고 치유를 위해 스님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평화스럽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최PD는 "사원내에 에이즈환자를 위한 중환자실과 일반감염자를 위한 수용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고, 화장터도 있다"고 소개한다. 〈은〉



'해수관음과 월드컵' 케익 금메달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요리·제과 올림픽대회인 제25회 IKA대회가 지난 9월8~12일 독일 베를린 메세회의전시장에서 열렸다. 전세계 30개국 약 1100여명의 요리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정관수씨(대한불과회장)가 '해수관음보살과 2002년 월드컵'을 주제로 한 케익으로 우리나라 제과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설탕을 분해한 빠스티아쥬로 만든 '해수관음보살과 2002년 월드컵'은 불교적 이미지와 국제행사 월드컵의 원만 성취기원이 잘 조화된 이색적인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만화 法句經

* 수행승의 장 *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이 향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사 찰 안 내
개인사정상 사찰 운영 하실 분을 찾습니다.
위치 : 충남
비용 : 1억5천만원
연락처 : 0463-32-2805

사 찰 안 내
산세 수려청정한 곳에 사찰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목포중심지
▣ 법당 : 23평, 요사체 : 20평
▣ 건평 : 200평
▣ 물 지하수, 교통편리
▣ 비용 :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 (062)525-4417
011-579-9865

동불·탱화 순금불사·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寺刹 및 古殿 建築木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삼원B/D(을지로 2가)
문의: 02)266-2629 ,팩스: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원 하실 분
인구 밀집한 도심지역에 포교원력을 세운 불자를 찾습니다.
법당 : 40평, 삼존불 탱화, 방사
주방시설 완비 전세 3000만원
전화 : 0331)41-4315

지리산 수행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연면(지리산줄기)
산새수려 주위의 폭포
토굴터로서 수행 정진의 최적지
연락처 : 0671-33-8918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도심속의 포교총림
"부루나 포교원"에서는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 부루나 포교원 대중 합장 -
Tel : (032)576-9741
인천시 서구 가좌동 3동 84-5
대한불교조계종 부루나포교원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함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회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眞玉 합장

포교당 양도
▶ 구리시 중심가 최고 요지
▶ 9년 전법 도량
▶ 약 40평 (100~150명 법회가능)
▶ 비용 : 4,000만원(상담)
일신상의 이유로 급히 양도
관음정사
전화 :0346)67-2812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5-1
박인성 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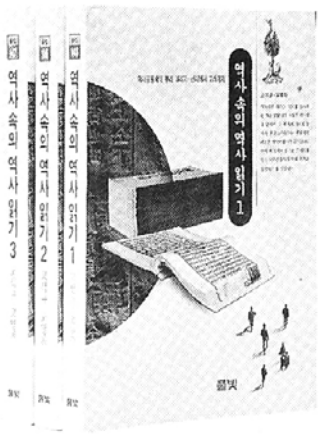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웅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불교는 한국문화 형성 기틀"

역사비평서 '역사속의 역사읽기'…고석규·고영진 교수 공저

'역사 효용성' 기준 147개 주제 다뤄
벽화·불화등 통해 풍속생활상 분석
시대별 불교사 공정시각으로 서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권짜리 역사비평서 〈역사속의 역사읽기〉(풀빛 刊). 역사를 제대로 읽어내는 시각을 길러주는 한차원 높은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에 불교관련 내용이 비중있게 잘 서술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역사속의…〉는 국사학계의 신세대인 고석규(목포대·40) 고영진교수(광주대·37)가 김상현(한국교원대) 이선복(서울대)교수,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중진학자와 동료 소장학자 24명의 도움을 받아 3년여의 작업끝에 출간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백47개의 주제를 선정, 역사적 사실들이 갖는 상호연관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 이 책은 '역사의 효용성'을 역사인식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간 대중 역사서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불교관련 사 부분을 민족문화사라는 측면에서 비중있고도 매끄럽게 서술한 점은 일반인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밖에 생활사의 비중을 높인 것도 이 책이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 벽화 불화 풍속화 등 미술작품과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의 음식 풍속 생활상을 흥미롭고 밀도있게 기술한 점도 돋보인다.

이 책에는 '신라의 불교'라는 타이틀 아래 △이차돈의 순교 △불교계의 새 바람, 원효 △의상과 화엄종단 △신라의 불교미술 △선종 구산문의 성립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신라 천년의 역사'란 타이틀 아래 △신라 문화의 국제성 △경주 여행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각 시대마다 불교관련 내용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균여의 화엄학 △지눌과 결사운동 △성리학 수용과 유불교체 등 우리 역사학계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불교관련사를 골고루 서술하고 있어 불교가 한국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관련사의 기술에 있어서도 공정한 시각을 잃지 않고 있다. 신라불교의 문화사적 의의를 "신라불교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로서의 의미보다는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문화를 형성한 기틀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지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른 이 시기 불교문화가 고려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큰 뿌리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또 신라 불교의 수용과 관련, "성골이라고 하는 골품이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불교왕명시대(법흥왕~진덕여왕)의 신라 왕실이 인도의 석가모니를 탄생시킨 왕실과 같다는 일종의 신성의식을 가졌다고 서술한 것도 흥미롭다. 즉 진평왕의 원래 이름이 백정(석가모니의 父)이며 진평왕의 부인이 마야부인(석가모니의 母), 진덕왕의 본명이 승만(승만부인)이었다는 것등이 구체적인 예이다.

김재경 기자

"오대산을 지장신앙 성지로"

김교각스님 일대기 다룬 역사소설 '중생이 다…' 펴낸 이 순 창씨



"중국은 김교각스님의 유물과 행적을 소상히 기록하고 보존해 우리에게 바턴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원류를 찾아 명실공히 완전한 역사 복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의 오대산과 중국 구화산 불교를 창시한 육신불(肉身佛) 김교각(일명 김지장)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소설 〈중생이 다 제도된 후에 꺼달음을 얻고 지옥이 다 빈 후에야 성불하리라〉(그린나라 刊)의 작가 이순창씨(39).

지난 93년 불교방송의 백팔가요 작가로 활동하다 영월 지장정사 해전스님으로부터 중문으로 된 〈구화산지(九華山誌)〉를 받고 연구를 권유받은 후 4년만에 교각스님의 일대기를 완성한 그는 지난해 중국측의 '신라 김수충설'을 뒤집고 '보질도 태자론'을 펴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역사학자도 불교학자도 아닌 그가 이같은 연구에 나서게 된 것은 교각스님 연구의 주도권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줬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교각스님이 신라 신문왕의 아들이자 성덕왕의 둘째 형인 보질도(보천 또는 효조) 태자라는 그의 주장은 학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대산의 남대(南台)가 곧 교각스님의 육신불이 안치된 중국 구화산의 남대와 상통합니다. 교각스님이 8~24세까지 수도했던 오대산을 구화산처럼 지장신앙의 성지로 가꾸어야 합니다." 〈재〉

국어사전 '중' 표현 '승려'로 고쳐

금성출판사 개정판

금성출판사(대표 김인호)가 〈뉴에이스 국어사전〉 제3 개정판부터 본문에 상용되고 있는 '중'이란 단어를 모두 '승려'로 바꾸기로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성출판사는 최근 지난 87년에 초판을 발행한 〈뉴에이스 국어사전〉의 제3 개정작업을 앞두고 본문에 상용 중인 '중'이란 단어가 비칭(卑稱)으로 인식되는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 개정판부터 '승려'란 단어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는 이 사전의 개정작업이 끝나면 〈국어대사전〉〈그랜드 국어사전〉〈콘사이스 국어사전〉등의 개정판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다른 국어사전과 백과사전 등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 일반인의 승보(僧寶)에 대한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성출판사 안상순 사서부장은 "그러나 '중'이란 단어의 표제어는 계속 사용되며, 승려의 존칭인 '스님'은 예전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거의 비칭화 된 '중'이란 말은 원래 인도어 승가(僧伽, Samgha)를 한역한 '중(衆)'의 음을 따서 사용하게 된 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3	삶은 고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5	생활참선 건강법	박 희 선	문 창
6	기도	일 타	효 림
7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8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9	위대한 자기의 발견	서 암	정 토
10	신도포교 지침서	성 일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에세이 법구경 — 이규호 편저



〈채근담〉〈명심보감〉 등의 동양고전들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해 온 시인 이규호씨(국제P.E.N.클럽 회원)가 〈에세이 법구경〉을 펴냈다.

〈에세이 법구경〉은 〈법구경〉을 조목조목 읽기 쉽게 풀어 낸 책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설법을 토대로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을 펼쳐가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심어준다. 저자 이규호씨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지침 제시

을 쉽게 풀어내어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불교의 테두리에만 머물지 않고 동·서양 여러 성인들의 어록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인생의 지침이 되는 참된 지혜"〈법구경〉이 불경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읽힐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어려운 오의(奧意)보다는 삶의 현장을 확연히 보여주어 행위의 지침으로 삼게 한 때문"이라고 말한다. 〈장원 7천원〉

유식이란 무엇인가 — 장순용 옮김



복잡한 유식학을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한 번역서가 나왔다. 일본 닛교(立敎)대 요코야마 코이치(橫山紘一)교수가 강의하고 장순용(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수료)씨가

복잡한 유식학 누구나 이해 쉽게 풀이

번역한 〈유식이란 무엇인가〉가 그것.

이 책은 저자 요코야마교수가 동경대불교청년회 주최의 '불전강독회'에서 행한 강의를 중심으로 저술됐다. 강의교재는 가마쿠라시대 법상종 승려인 양변(良遍)이 지은 〈이권초(二卷抄)〉. 〈이권초〉는 〈법상이권초〉라고도 하는데, 양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유식의 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술한 작품으로 유식의 입문서로 널리 읽혀진 책이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강의를 통해 〈이권초〉에다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누구나 쉽게 유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세계사 1만5천원〉

화제 외책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불광법회요전



정 병 조
〈롯데그룹 ▩保관리이사〉

우리들은 어느때 한 번쯤은 인생의 의미와 종교적 신앙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보게된다.

나는 평소에 나 나름대로 불자의 다섯 덕목(德目)이라 하여 믿고(信), 교리를 이해하며(解),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行) 진리를 증득해야 하며 이를 널리 포교를 통하여 전법도생(傳法度生)하는데 이바지 해야 한다는 신념(信念)을 갖고 있다.

내가 이 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약 15년전 서울 잠실에 있는 불광사(佛光寺)의 법회에 동참하여 광덕(光德) 큰스님을 친견하게 된데서 시작된다.

이 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하면서 반야사상에 입각한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십종대원(十種大願)을 그 실천행으로 하는 불자, 비불자 모두가 읽어야 할, 아니 읽음을 통해서 인간본성을 찾을 수 있는 신행(信行)과 포교의 겸수(兼修)두는 그 기초와 뿌리가 확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과실을 기대할 수 있듯이, 불문(佛門)으로 들어서는 초심자의 믿음과 실천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이 불서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불교는 믿으면서 불법을 이해하고 불법을 이해하면서 바르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교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종교

불교의식 현대화 내용 담겨
불성생명 얻는 지름길 안내

지침서로서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불교의식(儀式)을 현대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특히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내용이 쉽게 요해(要解)되어 있으며 더욱이 포살요목(布薩要目) 즉, 참회를 통해서 선근(善根)의 증장(增長)과 악근(惡根)의 단절을 도모하는 의식을 구체화 하고 있어서 가일층 이 불서의 진가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 책은 '마하반야바라밀'의 불성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동지침을 가르쳐 주는 보배의 불서이다.

이 책에서 '반야보살 행원의 기도문'이 특히 돋보이며 '반야바라밀'이 제불보살의 불모(佛母)이고 보리도(菩提道) 성취의 길은 보현행의 실천을 겸수하는 일이 그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세간사(世間事) 모두는 그 인연관을 갖고 나는 생활하고 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 그것만이 한국불교가 21세기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종교로서 역할할수 있게 할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발전의 계승자로서의 중책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위상정립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여법하게 살겠다는 굳건한 서원과 365일을 부처님과 함께 하겠다는 불퇴전의 수행정진의 생활, 그리고 포교활동을 활성화하여 이 사회를 불국정토화 할 수 있다는 밝은 미래를 계시(啓示)해 주는 그러한 불자의 삶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불서를 읽음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보기 바란다.

본은 가득,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2大 특별 기획

특별 기획 그 첫번째

사보(寺報) 전시회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을 모아 일 주일간 본점 매장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구현에 뜻을 두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전시기간:** 10월 23일~29일(일 주일간)

▶ **사보 구분:**
① 간별(유가, 무가) -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
② 판형별(유가, 무가) - 4×6판, 4×6배판, 국판, 국배판, 신문대판, 타블로이드판

▶ **전시 내용:**
각 사보의 최초 발행판 및 최신 발행판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

▶ **참관 고객 인기투표:**
재미 있는 사보, 인상 깊은 사보, 받아 보고 싶은 사보 등을 선정하여 현대불교신문 지상에 발표

※참여할 뜻이 있는 사찰이나 단체는 혹 공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책방 여시아문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획 그 두번째

'좋은 책 선정' 위원회 발족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 여러분의 보다 알찬 독서 생활을 위하여 '좋은 책 선정'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광고와 함께 일반 대형 서점에 진열된 베스트 셀러들 때문에 오히려 '책 읽기'의 가벼워지기와 편식 현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훌륭하게 기획된 우수 도서들이 정작 독자들의 손에 미치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 또한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좋은 책'은 고객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 **선정 위원회:** 각계 전문가 6명, 고객 6명으로 구성
고객 가운데에서는 독후감(불서에 한하여 5매 가량)을 접수 받아 그 가운데 안목이 뛰어난 고객 6명을 선출, '좋은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위원 각각 신간 2부, 구간 2부(총 48부)를 다달이 본사 양식에 따라 추천하고 그 가운데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

▶ **운영 방법:**
매월 15일까지 좋은 책 선정 위원으로부터 도서 추천 마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주기 전시 및 소개
매월 선정된 도서는 소식지 및 현대불교신문에 게재

책방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737-0695
팩스:737-0696

현불뉴스

전국 포교사단 추진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포교사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국규모의 포교사단과 교구별 포교사지단, 주요사찰 포교사지회의 구성을 내년도 주요 종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2천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총무원 기획실에 제출했다.

포교사는 지난 82년부터 총무원이 체계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약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단차원의 포교사에 대한 지도와 활용방안이 없어 포교사증의 남발, 인력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적원 철회서 제출

(재)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9월19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선학원이사 제적원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진스님은 "종단과 재단의 대화합조치에 따라 지난 4월 조계종에 제출한 선학원이사 9명의 제적원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진스님은 지난 8·27합의에 따라 새로 선임한 이사 6명의 승적확인을 요청했다.

1억7천여만원 모금

지난 여름 수해로 재난을 입은 수재민돕기 모금이 불교TV 9천9백만원 불교방송 7천4백여만원 등 1억7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구본사 사무장연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9월2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교구본사 사무장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총무원은 △교구예산편성 취지와 방법 △사설사암, 토굴파악 △사찰환경 실태조사 △종무감사 수검사항 등의 종무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포교원은 원활한 신도등록을 위해 각 사찰에 "내가 갖는 재적사찰 불교중흥 지름길" 현수막을 게재토록 요청했다.

봉은사청년회 '알뜰장터'

서울 봉은사 청년회는 오는 10월22일 경내에서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실시한다. 금년으로 5회째 맞는 알뜰장터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의미를 담고있으며 성인용의류와 유아용품, 가전제품, 가구 등을 판매한다. 청년회는 알뜰장터에 판매할 물품을 10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 (02)517-9551

"108배·3천배로 불심 키운다"

절마다 '절·참선' 수행

구룡사 백고좌법회중 하루 두번 108배
동산반야회 '2·8월은 3천배의 달'
법련사 매주 수요일 참선법회 실시
선학원 중앙선원 시민선방 이용자 늘어



◇서울 구룡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된 백고좌법회 기간중 주지스님과 함께 참석자 모두가 법회를 전후해 매일 두차례 108배를 실시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절하는 불자들이 늘고있다. 교리학습 위주에서 수행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불자들의 불교공부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 특히 도심포교당과 불교교양대학이 주로 기초교리강좌를 비롯한 교학공부에 치중했는데 최근에는 절수행 및 참선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지난 8월12일부터 시작된 백고좌법회 기간중 주지스님과 함께 참석자전원이 법회를 전후해 매일 두차례 108배를 실시하고 있다. 정우스님은 "도심포교당이 포교를 강조하다보면 자칫 수행을 소홀히 할 경향을 경계하는데 108배가 적격"이라며 모든 법회에 절수행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에서는 1년에 두차례 2월과 8월을 3천배하는 달로 정해 회원이면 누구나 실천해야 한다. 또 이곳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동산불교대학 수강생은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 10만8천번 사불(寫佛)을 과제물로 제출해야 한다. 2년 동안 하루 1시간은 써야 하는 분량이다.

동산불교대학 제5기 수강생인 김성순(66·한마음선원) 이정혜 부부불자는 토요일 불교대학 강의시간 이외에 화요일을 절하는 날로 정해 동산법당을 찾는다. 서울 성수동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김씨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교리로 배우려고만 한다"고 지적하고 "수행도 같이 해야 신심있는 참불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언젠가는 아이들도 함께 3천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수행이 강조되는 분위기의 확산은 그동안 기복신앙과 교리공부에 치중되어 수행은 소홀했다는 반성과 교리공부를 바탕으로 불자들의 신행이 한단계 진전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련사(회주 현호) 청년회는 매주 수요일 청년법회와 별도로 금요일 오후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청년회원 박명기씨(34·일간스포츠 기자)는 "참선수행으로 불교를 체험하고 싶어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학원 중앙선원은 지난 91년부터 시민선방을 개설해 불자들은 물론 부근 직장인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지도법사는 선학원장 성해스님과 부원장 성돈스님이 직접 맡고있다. 매일 점심시간에 10여명의 단골선객이 찾고 있다.

정성운 기자



◇교산동 일대에서 불교유물이 계속 발견되어 백제 불교 성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금암산에 있는 마애불.

남한산성 백제 불교성지 '가능성'

'天王' 명문 새겨진 기와조각 발견…'천왕사 터' 추정

경기 하남시 교산동 일대가 백제 불교의 성지(하남 위례성)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유물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9월18일 불교TV는 이 일대에서 천왕(天王)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을 발견했다고 전하고, 이곳이 천왕사 터였으며, 백제불교의 성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남시 교산동 일대는 백제문화연구회(회장 강찬석)가 지난 5년동안 지표조사를 계속해 오면서 각종 사료와 그동안 출토유물, 조사결과를 통해 한성백제의 하남 위례성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곳.

천왕사는 〈삼국사기〉 백제의자왕편에 나타나 있는 사찰로 삼국사기는 의자왕 20년 백제 멸망의 조짐으로 천왕사와 도양사에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난 87년에는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보관중인 청동 탄생불이 발견됐으며, 왕궁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의 서쪽 금암산 자락에서 심하게 훼손된 마애불과 일곱개의 연잎으로 이루어진 백제 기와조각 등이 잇달아 출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는 "위례성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교산동 일대를 비롯해 인근 춘궁동과 몽촌토성, 광주군 불당리 등 여러 곳이며 교산동 일대를 위례성으로 단정할만한 증거자료는 아직 없다"며 "확실한 것은 심도깊은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학사 이전 무관심"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은 학사이전보다 현 위치의 개운학사를 확장,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상당부문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개운학사를 먼저 정비하고 김포학사로의 이전을 추진해야한다고 답해 김포학사이전에 대한 신중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1백38명(69%)에 이르는 학인스님들은 '학사이전엔 관심없다'고 말하는 등 학사이전에 대해 학인스님들은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의 강의수준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상회해 현재의 커리큘럼과 강의수준으로는 학생들의 학문적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희망하는 신설증설학과로는 종무행정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학과 순으로 조사됐다.

• 중앙승가대학 신문사가 6주년을 맞아 학생 2백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8.5%에 달하는 77명의 학인스님들이 개운학사 주위의 땅을 매입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의외로 다수의 학인스님들이 개운학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반수가 넘는 1백10명의(55%)의 학인스님이 개운학사를 먼저 정비하고 김포학사로의 이전을 추진해야한다고 답해 김포학사이전에 대한 신중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1백38명(69%)에 이르는 학인스님들은 '학사이전엔 관심없다'고 말하는 등 학사이전에 대해 학인스님들은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의 강의수준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상회해 현재의 커리큘럼과 강의수준으로는 학생들의 학문적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희망하는 신설증설학과로는 종무행정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학과 순으로 조사됐다.

日서 한반도 평화기원비 제막

10월1일 한·중·일 천태종 '지자대사열반 1400주년' 합동 법요식

한·중·일 천태종은 10월1일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 근본중당에서 한국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운덕 총무원장 중국 국청사주지 가명법사 일본 천태종 우메야마좌주를 비롯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지자대사 열반 1400주년 한·중·일 천태종 합동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보은경찬문'을 봉독하여 천태대사의 업적을 기렸으며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축사를 통해 3국 불교문화교류와 유대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천태종 스님들은 세계인류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기원비를 제막했다. 이 비석은 3국의 천태종 종정스님들이 천태지자대사 교훈의 글구를 한면씩 붓글씨로 써서 새겼으며 앞면에는 '세계인류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기원'이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이에앞서 9월 30일에는 '천태대사 보은의'라는 주제로 전야제가 열렸다. 전야제에서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은 각 나라에서 전승해온 불교음악 불교미술 불교의례등 전통예술 공연을 펼쳤다.

갓바위부처님 약합 재조성 주장 제기

대구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에 약합(藥盒)이 없어져 영험이 떨어졌다며, 약합을 다시 조성해 안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ㄷ사 신도라고 밝힌 임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매월 2~3회 갓바위 부처님을 찾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날 약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약합을 조성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이에따라 지난 8월초 갓바위 부처님 뒷산에서 화강암을 채취, 종형부도 모양의 약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무사 2백여명 불자회 창립

무료세무상담등 실시

한국세무사불자회가 지난 9월23일 조계종 총무원내 불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는 2백여명의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송호승씨(56·영진세무회계법인)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관련 인터뷰 4면〉

세무사불자회는 이후 월례법회와 무료세무상담등의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 3천5백여명에 이르는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전국 7개 시도에 지부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찰환경훼손 실태 조사

조계종 문사부 사찰환경권 법적자료 마련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 침해 현황을 파악하는 사찰환경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성관)는 9월19일 교구본사사무장 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계종 전사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사부에 따르면 이미 1일부터 조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1차 서면조사로 기초실태조사서를 21일까지 발송하고 2차 전화를 통한 보강조사에 이어 3차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사부 관계자는 "현재 사찰환경침해가 진행되고있는 곳이 20여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분쟁가능지역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 실태조사를 착수하게됐다"며 "사찰환경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사찰환경권의 법적 제도적장치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마음 나부터 알아야 남을 알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서 어디로 가는가. 현재·과거·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남의 탓하고 환경탓하며 바깥일에 시비를 가리자고 할겁니까. 우선 나부터 알아야 남도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 앞으로 등이대서는 것입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그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천혜의 전원주택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 7,000만원
◉ 지목: 대지(2필지), 평수 : 234평
◉ 건평 : 26평(현재 화방) 기름보일러
◉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 채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사 찰 부 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6,500만원
◉ 지목: 준농림(田) 평수 : 1032평
◉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투자성도 매우 좋음,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루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중국명문 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 수 대 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11월 1일 (금)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한국의 명찰」에 계신 스무 분의 부처님들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눈에 잡힐 듯한 그모습 그대로 「한국의 명찰 20선」에 담았습니다

월정사, 쌍계사, 선운사, 부석사.....
이름만 들어도 정취가 넘치는 한국의 유명 사찰들을
스무편의 비디오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승대덕의 훌륭한 법문이
살아숨쉬는 「한국의 명찰」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은은한 목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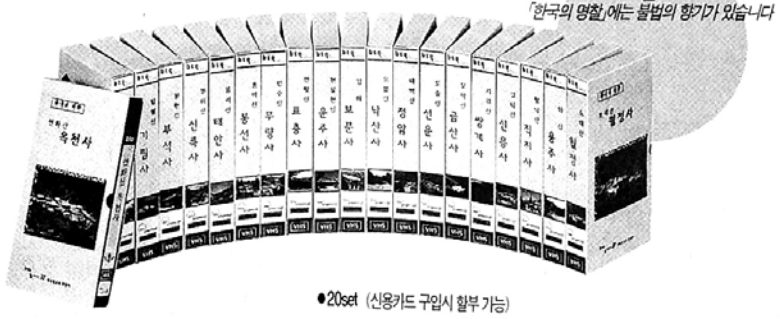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대하 다큐멘타리-
「한국의 명찰」20선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한국의 명찰」 20선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전국의 유명 사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사찰을 자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佛心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명찰」엔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감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어 각급 학교의 VIDEO학습교재로 최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여러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증하셔도 좋습니다

구입방법 : 100% 전화 주문
구입문의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한국의 명찰」 시리즈 20선!
「한국의 명찰」에는 불법의 향기가 있습니다



●20set (신용카드 구입시 할부 가능)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불심있는 주부아르바이트 모집
-전화 상담직
-연령 30~40대(서울시내 거주 하시는 분)